

역학		번호: J - B - 4			
제 목	국문	전립선암에 대한 환자-대조군 연구			
	영문	Effects of smoking, drinking, diets and past-medical history on prostate cancer - a case-control study			
저 자 및 소 속	국문	김현 ¹⁾ , 김원재 ²⁾ , 강종원 ¹⁾ , 이철호 ¹⁾ , 안성철 ¹⁾ , 박미경 ¹⁾ , 임동혁 ¹⁾ , 노성일 ¹⁾ 1)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2)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비뇨기과학교실			
	영문	HEON KIM ¹⁾ , WUN-JAE KIM ²⁾ , Jong-Won Kang ¹⁾ , Chul-Ho Lee ¹⁾ , Sung-Chul An ¹⁾ , Mi-Kyong Park ¹⁾ , Dong-Hyok Yim ¹⁾ , Sung-Il Noh ¹⁾ 1)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2) Department of Urology, College of Medicin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분 야	역 학	발 표 자		발표형식	포스터
진행상황	연구완료				
<p>1. 연구목적</p> <p>호르몬, 식이, 과거력, 유전적 소인, 사회경제적 요인, 직업, 생식 행위 및 비뇨기계 감염 등이 전립선암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 식이 요인 중에서 총지방과 포화지방, 그리고 육류 섭취, 유제품 등을 많이 섭취하는 경우 전립선암의 발생위험도가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신선한 야채를 많이 먹는 경우에는 전립선암의 발생위험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과거력 중에서는 정관수술을 하면 전립선암의 위험도가 증가한다는 보고와 그렇지 않다는 보고가 모두 있으며, 신장결석이 전립선암의 발생위험도를 4.52배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한편, 당뇨와 포경수술은 전립선암의 위험도를 낮춘다고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흡연과 음주, 그리고 식이, 질병의 과거력이 전립선암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시행하였다.</p> <p>2. 연구방법</p> <p>연구대상자는 9개 대학병원에서 모집한 전립선암 환자 184명과 이들과 연령을 짝지은 건강 대조군 267명이다. 이들의 평균연령은 각각 67.7세와 65.2세였다. 흡연과 음주 여부, 그리고 식이 습관, 질병 과거력 등은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특히 식이 분석은 89개 음식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반정량적 식이빈도표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대상자에 대하여 총열량 섭취량을 산출하고 이 열량 섭취량을 이용하여 각 음식의 항목별 섭취량을 보정하였다. 각 음식의 섭취량은 대조군의 열량보정 섭취량의 중앙값을 기준으로 고섭취군과 저섭취군으로 나누어서 통계분석에 이용하였다.</p> <p>3. 연구결과</p> <p>흡연과 음주는 전립선암 발생위험도와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음식 중에는 각종 과일, 마늘, 양파, 해초류, 염장 식품, 콩, 녹차, 조개, 청량 음료, 우유, 요구르트 등이 전립선암 발생위험도를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신선한 야채와 찌개류, 그리고 국 종류가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류와 커피, 그리고 알콜은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질병과거력에서는 위장 수술, 폐 결핵, 고혈압, 성병, 담석증, 치질 수술, 정관 수술 등이 전립선암의 위험인자로, 신장결석이 예방인자로 나타났다. 그러나 급성 신우신염이나 당뇨 등은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내지 않았다.</p>					

4. 고찰

우유와 유제품이 전립선암 발생위험도를 증가시키며, 야채가 그 위험도를 감소시킨다는 결과는 외국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지만, 각종 과일이 위험인자로 나타난 것은 기존의 연구결과와 차이가 있는 것이다. 또한, 정관수술이 유의한 위험인자로 나타난 것은 백인에 대한 연구결과와 합치되지만, 신장결석 과거력이 전립선암의 예방인자로 나타난 것은 유고슬라비아의 연구결과와 반대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의 전립선암이 백인종에서 발생하는 전립선암과는 다른 발생원인을 가짐을 시사하는 것이며, 유전적 요인이 강력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